

# 지역 축산농가 美쇠고기 '불똥'

### 한우 소비 줄고 1주일새 가격 1.5% 하락 소·돼지 산지가격 동반하락 농가 큰 타격

광주·전남지역의 대형 할인매장이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본격 나서면서 호주·뉴질랜드산 수입 쇠고기 가격은 물론, 국내산 쇠고기와 돼지고기까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소와 돼지의 산지가격은 할인매장에서의 판매가 재개된 지난달 13일 이후 하락세가 본격화되면서 전국 축산농가 비중의 15.6%를 차지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축산농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2일 농협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현재 한우 갈비(1등급)가 광주·전남에서 500g당 3만3천400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는 1주일 전인 7월 말(3만3천940원)보다 540원(1.6%) 떨어진 것으로, 소비자들이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선호함에 따라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같은 기간 한

우 등심(1등급)도 500g당 3만2천83원에서 859원(2.7%)이나 하락했다. 돼지고기도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돼지고기는 대형 할인점의 미국산 쇠고기 판매가 시작되기 전까지 500g당 평균 7천559원에 팔렸으나 1일 현재 7천538원으로 21원(0.3%) 떨어졌다. 특히 이같은 추세는 국내산 소·돼지의 산지가격을 떨어뜨리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어 가격 급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남지역에서 거래되는 큰 암소(600kg)의 산지가격은 463만3천원으로, 7월 말(471만4천원)보다 8만

1천원(1.7%) 하락했다. 이는 7월 평균(478만2천원)보다는 14만9천원(3.1%)이나 떨어진 것으로, 같은 기간 큰 수소(600kg)도 10만원(2%) 하락했다. 산지가격은 국내산 돼지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1일 현재 성돈(100kg)의 거래가격은 21만6천원으로, 7월(24만3천원)보다 2만7천원(11.1%) 떨어졌다. 이는 미국산 쇠고기 시판 이후 삼겹살 등 돼지고기 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 ■경실련, 민선 4기 1년간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

## 전남지사 3위·광주시장 14위

### 광주, '일자리 창출' 등 전국 평균에도 못미쳐 전남,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 등 평균 2.23점

민선 4기 1년동안 광주·전남 시·도지사의 공약 이행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평가 결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3위, 박광태 광주시장은 14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은 5점 만점에 2.04점의 낮은 점수를 기록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경실련은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핵심사업' 3가지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청, 확보한 자

료를 바탕으로 7개 영역으로 나눠 공약의 정책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7개 평가 영역은 ▲예산 배정의 효율성 ▲정책 달성 정도 ▲입기 내 가능성 ▲권한의 범위 ▲정책 환경의 조성 ▲사회경제적 환경 ▲정책 자료의 구체성 등이다. 박준영 전남지사는 '전 지역 한 시간대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생명산업 육성' '9988 노인행복프로젝트' 등 3가지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에서 평균 2.23점을 얻어 3위

를 차지했다. 박 지사는 7개 영역 가운데 '권한의 범위'를 제외한 영역에서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점수를 얻었다. 반면 박광태 광주시장은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노화종합연구소 설립'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평가에서 전국 평균에 못미치는 1.72점을 얻어 14위에 그쳤다. 박 시장은 7개 영역 중 '정책 자료의 구체성'만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번 평가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 곳은 서울시(평점 2.98점)였고, 최하위는 충남도(평점 1.60)였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신안 '섬드리 쌀' 15t 美 수출 선적

신안에서 생산되는 '섬드리쌀'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신안군은 2일 안좌면에서 섬드리 쌀의 올해 미국 수출 계약물량 120t 중 1차분 15t을 선적했다. 이날 안좌농협 광장에서는 전남도와 농협, 국립식물검역소 목포출장소, 수출 쌀 생산 농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섬드리쌀의 미국 수출을 축하하는 기념식도 열렸다. 섬드리쌀의 선적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식으로 전남 쌀을 수출하는 첫 사례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군은 이번 1차 선적에 이어 나머지 물량 105t은 오는 10월 햅쌀이 나오면 미국으로 수출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섬드리쌀의 미국 수출이 고품질 신안 쌀의 대외 인지도 상승과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우람 군수는 "신안 쌀의 첫 미국 수출은 다른 농산물의 수출 길을 여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한·일 항공자유화 합의

### 광주 등 지방공항서도 무제한 취항 가능

일본으로 가는 하늘길이 활짝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항공회담에서 양국간 항공자유화에 합의해 향후 도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객과 화물 부문 모두 운항횟수에 제한없이 자유로운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아울러 일본 내 운항가능 지점도 당초 특정 도시로 제한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항공사가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모든 지점에서 운항시점을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항할 수 있게 됐다. 현재 한일간 운항 현황을 보면 한

국측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25개 도시 35개 노선, 주 330회를 취항하고 있으며 일본측은 2개 항공사가 2개 도시, 11개 노선, 주 92회를 운항하고 있다. 이번 항공 자유화에 따라 서울-오사카 노선의 경우 기존 주 42회로 운항이 제한됐지만 앞으로 운항을 무제한으로 늘려 일본을 찾는 방문객들의 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즉 광주, 제주, 부산, 대구, 청주 등 지방공항에서 오사카, 나고야 등의 무제한 취항이 가능해졌다. /연남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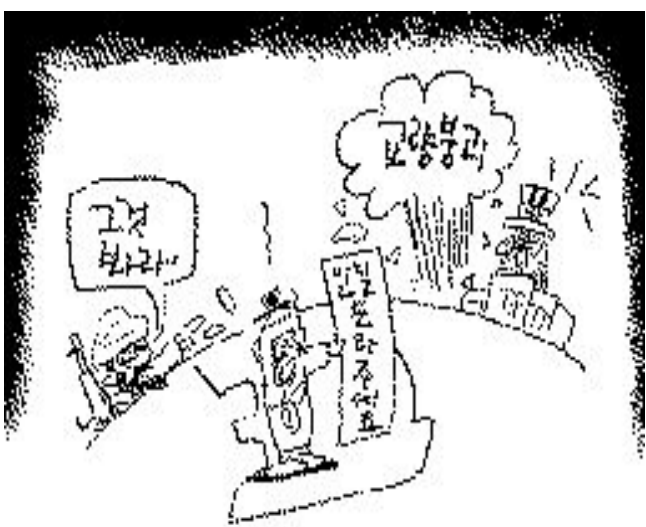


광주 로보랜드 후보지 실사

산업자원부의 로보랜드 조성사업 실사단이 2일 광주를 방문, 광주시가 로보랜드 조성사업의 후보지로 신청한 어등산 일대를 둘러보고 있다. 광주시는 오는 7일 지역 국회의원과 경제계 등 각계 대표 70명이 참여한 가운데 '로보랜드 광주유치 범시민 대책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 빛日만평

- 김중두



남의 아픔이 곧 자기 아픔입니다

## 만 3~5세 절반이상 '인터넷 활용'

### 50대 사용자 급증

만 3~5세의 유아들도 절반 이상이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으며 50대의 인터넷 이용률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또 네티즌 10명 중 7명은 인터넷으로 신문, TV, 라디오 등 미디어 콘텐츠를, 5명은 인터넷 쇼핑을, 4명은 블로그·미니홈피 운영 또는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실시한 '2007년 상반

기 정보화실태조사' 결과, 만 3~5세 유아의 인터넷 이용률이 51.6%로 전년(50.3%) 대비 1.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고 2일 밝혔다. 인터넷 인용 시간은 주 평균 4.3시간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 아이(53.3%)가 여자 아이(49.9%)보다 비율이 높았다. 인터넷 이용 유아가 중 음악·게임·영화 등 오락물을 이용하는 비율이 89.0%로 교육·학습 이용 비율(87.3%)보다 다소 높았다. /연남뉴스

## 시속 160km '한국형 아우토반' 만든다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스마트 하이웨이' 추진

차안에서 도로상황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소음과 교통체증 없이 시속 160km 이상의 속도로 주행할 수 있는 '똑똑한 고속도로'가 오는 2016년까지 국내에 건설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2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꿈의 고속도로'를 구현하는 '스마트 하이웨이' 연구개발 사업 추진계획을 심의, 의결

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16년까지 총 1천494억원을 투입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기술과 첨단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기술을 결합, 이동성과 편리성,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고기능·지능형 차세대 고속도로를 개발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타이어 소음방지 및 배수 촉진 포장기술 ▲도로 상

부속물 수명 연장 기술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기술 ▲교통제어 기술 ▲미래형 첨단 자동차의 안전주행 지원 기술 등 최첨단 기술을 개발, 스마트 하이웨이에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고기능·지능형 고속도로 실현을 위해 핵심요소기술 개발과 실증화 검증도로 건설 등 2단계로 구분, 추진하며 소요 예산은 정부가 1천46억원, 민간 448억원으로 분담, 조달하고 검증도로 구축비용은 연구개발 예산과 별개로 전액을 사업 시행자가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연남뉴스

<p>當社代表理事 廉昌坤 大夫人 全州李氏 松直 以宿患 二〇〇七年 八月 二日 午前 五時 三十分 (陰 六月 二十日) 茲以告訃</p> <p>株式會社 成岩土建</p>	<p>當社代表理事 廉明坤 大夫人 全州李氏 松直 以宿患 二〇〇七年 八月 二日 午前 五時 三十分 (陰 六月 二十日) 茲以告訃</p> <p>株式會社 瑞山 株式會社 成岩 株式會社 成岩土建 大像通運</p>	<p>(個人訃告省略用花、贈儀、鄭重訃謝絶합니다.)</p> <p>連絡處: (062) 95015000 (會社) (062) 23118901 (病院)</p> <p>護喪 外孫女 孫女 孫子 子婦 婿 女 嗣子 夫 廉 洪 燮 外孫女 金沈金 李金沈金 廉 朴 興 珍柔勝丞登宗宗美秀在鳳善明昌明 錫 炅炅甫勳阮燁太學娜雅南載愛子坤坤</p> <p>光州·全南經總會會長</p>	<p>明坤 大夫人 全州李氏 松直 以宿患 二〇〇七年 八月 二日 午前 五時 三十分 (陰 六月 二十日) 茲以告訃</p> <p>發軔日時: 二〇〇七年 八月 四日 午前 九時 發軔場所: 朝鮮大學校病院 葬禮式場 葬地: 全南 長城郡 珍原面 桑林里 (家族墓地)</p>
--	---	--	---